| 국어는 이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파이널Ⅰ 제2차 예비평가 정답과 해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I 제2차 예비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형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②	2	18	④	2	35	④	2	35	②	2
2	③	3	19	②	2	36	④	3	36	⑤	2
3	②	2	20	①	2	37	⑤	2	37	④	2
4	③	2	21	⑤	3	38	④	2	38	⑤	2
5	①	2	22	③	2	39	④	2	39	④	3
6	②	2	23	④	2	40	③	2	40	①	2
7	③	2	24	③	2	41	①	2	41	⑤	2
8	④	3	25	⑤	2	42	①	2	42	②	3
9	①	2	26	②	3	43	④	2	43	⑤	2
10	①	2	27	④	2	44	⑤	2	44	③	2
11	②	2	28	⑤	2	45	①	3	45	④	2
12	③	2	29	⑤	2						
13	③	3	30	①	3						
14	①	2	31	④	2						
15	⑤	2	32	②	2						
16	⑤	3	33	③	2						
17	⑤	2	34	④	3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Ⅰ 제2차 예비평가 해설

• 공통과목 •

[1 ~ 3] 독서론

1. [출제의도] 특정 방식의 독서에 포함되는 행위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텍스트의 의미는 저자가 의도한 데 있다고 보고 저자의 의도를 통해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객관주의 지식관에 바탕을 둔 것으로, 구성주의적 독서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지식을 구조화하는 행위는 구성주의적 독서 행위의 일부이다. ③ 자신의 기존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구성주의적 독서 행위의 일부이다. ④ 자신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을 비교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지식을 협동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구성주의적 독서 행위의 일부이다. ⑤ 구성주의적 독서 행위에서는 글을 읽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면 애초에 설정했던 목표를 수정하기도 한다.

2.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익과 유장이 서로의 생각 중에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뽑아서 증거를 대어 토론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상호 작용으로, 지식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협동적으로 구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이익의 글을 읽어 보고 서로의 생각을 대조한 유장의 행위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는 역동적인 행위이다. ② 유장이 이익의 생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대조한 후 취할 만한 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구성주의적 독서 행위로, 객관주의 지식관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④ 토론을 통해 의혹이 풀린 것은 글을 읽다가 문제에 직면한 후 토론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구성주의적 독서 행위에 해당한다. ⑤ 이익과 유장의 마음에 둔 바가 같아진 것은 상호 작용을 통해 지식을 협동적으로 구성하는 구성주의적 독서 행위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학생의 독서 기록장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은 저자가 이끄는 대로 받아들이는 독서를 하던 때와 비교하여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사유하는 구성주의적 독서를 한 결과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읽은 내용에 대한 토론, 즉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지식의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학생은 독서의 일반적인 효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지속적인 독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도 않다. ③ 학생은 비판적 읽기를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다. ④ 학생은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기로 결심한 것은 아니다. ⑤ 학생은 기존 지식을 잘 받아들이기 위한 새로운 독서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지 않다.

[4 ~ 9] 인문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44쪽

4. [출제의도] 공통점을 중심으로 비교하며 읽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직분 개혁을 통해 사회 혼란을 해소하려는 순자의 입장을, (나)는 직분 개혁을 통해 국허민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수원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직분 개혁이라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두 입장을 비교하며 읽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의 순자는 직분이 능력과 덕에 따라 나누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에서의 유수원은 직분이 학식과 재능에 따라 나누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 지문은 그 외의 기준들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 기준들에 대한 보편성을 확인하며 읽어야 하는 상황도 아니다. ② 신분제의 시대별 변천 과정은 (가)와 (나)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④ (가)에서의 순자나 (나)에서의 유수원은 사회 또는 국가 차원에서 사회 혼란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⑤ (가)와 (나)에서 순자나 유수원의 일생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다.

5.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공자에 따르면 임금이 임금다워야 하듯 모든 사회적 지위의 이름인 '명'에는 그에 합당한 역할과 책임인 '분'이 따른다. 즉 임금도 '임금'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여 '명분'을 얻어야 한다.

[오답풀이] ② 순자는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위를 통한 사회적 분별이라고 보았다. 즉 사농공상이라는 사민이 분별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사민미분은 이와 달리 사민이 제대로 분화되지 않은 상태를 뜻하므로, 선도 아니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인 것도 아니다. ③ 조선에서는 양인만이 군역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 즉 양반뿐만 아니라 천민에게도 군역이 부과되지 않았다. ④ 유수원은 『우서』에서 서론에 해당하는 권1의 바로 다음에 신분제의 개혁에 관한 내용을 집중하였다. 신분제 개혁에 대한 내용을 서론격인 권1에 집중한 것은 아니다. ⑤ 유수원이 주장한 '사민일치'는 신분 대신에 학식과 재능에 따라 각자가 직분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여 사민이 평등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럴 때 차등이 온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민의 위계도 인정되고 위계에 따른 몫의 차등도 인정된다.

6. [출제의도] 특정 관점에서 특정 개념들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순자에 따르면 욕구 자체는 '악'이 아니다. 욕구는 생존 욕구에 기초한 것으로 선악 판단의 대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욕구 충족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혼란이 '악'이다.

[오답풀이] ① 순자에 따르면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별인 분업 또는 직분의 구분이 필요하다. 직분의 구분이 정당하여 욕구의 충족이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사회가 공평해지고 예법이 바로 설 수 있다. ③ 순자에 따르면 욕구는 이기적인 생존 욕구에 기초한 것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그것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④ 순자에 따르면 직분이 인위적인 사회적 분별에 따라 정당하게 나뉘면 욕구의 충족이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종욕이나 인욕이 아니라 욕구의 적합한 충족이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있다. ⑤ 순자에 따르면 분별이 정당하면 공평을 이룰 수 있다. 분별이 정당하다는 것은 직분이 덕과 능력에 따라 합당하게 나뉘어 잘 수행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공평이란 욕구의 충족이 적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7.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두 학자가 동의하는 진술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 순자와 유수원은 공통적으로, 명분을 바르게 하는 직분의 수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두 학자 모두 각 직분의 '명(名)'에 부합하는 합당한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ㄴ. 순자에 따르면 신분이든 직분이든 덕과 능력에 따라 주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몫의 차등도 인정된다. 유수원도 직분의 위계와 이에 따른 몫의 차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도 순자와 마찬가지로 자질과 능력에 따라 종사하는 직분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ㄷ. 순자는 사회 혼란을 막을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분제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유수원은 신분제가 직분제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신분제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8.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우서』에서 인용된 내용들로, 첫째 부분은 당시 문벌 중시에 따른 근로 의욕 상실을 다루고 있다. 둘째 부분은 사농공상의 직분이 국가의 강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의해 맡겨져야 하며, 직분의 위계는 있으나 모든 직분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부분은 중국의 태평성대였던 시기인 삼대 때는 모든 직분의 자녀가 교육을 받고 그 능력에 따라 사(士)가 될 수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풀이] <보기>의 둘째 부분에서 유수원은 바람직한 직분 구분은 능력에 따른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아울러 직분 간에는 위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이때 직분의 위계는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순자의 경우 혼란을 막기 위해 위계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는데, 이 점은 유수원의 견해와 차이가 있는 생각인 것이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첫째 부분에서 서술된 문벌 중시에 따른 근로 의욕 상실과 같은 사회상, 문벌에 의한 차별 등은 (가)에서 순자가 제시한 사회 혼란상과 거의 일치한다. 순자는 사회 혼란을, 직분이 정당하게 구분되지 않아 욕구의 충족이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혼란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서술은 (가)에 제시된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 ② <보기>의 첫째 부분에서 문벌 중시로 백성들이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이는 국허민빈의 원인 중에 근로의 상실에 더 부합하는 것이다. ③ <보기>의 셋째 부분에서 제시된, 삼대 때 사민의 총명한 자녀가 사(士)가 될 수 있었다는 사례는, 신분 세습을 거부하고 능력에 따른 직분의 구분을 주장하는 순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사회상이다. ⑤ <보기>의 셋째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부분에서 제시된 삼대 때 모습은 유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직분주의가 뿌리내린 모습으로 바람직한 사회상이다. 하지만 그것은 조선 후기 당시에는 실현되지 않은 이상적인 사회상이다. 그래서 유수원이 개혁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9. [출제의도] 지문의 단어와 문맥상 가까운 단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가져오는(가져오다)'은 문맥을 고려할 때 '어떤 결과나 상태를 생기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산업의 발전은 인류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에 쓰인 '가져오다'와 의미가 유사하다.

[10 ~ 13] 사회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64쪽

10.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합병으로 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더라도, 재무 구조의 우량한 정도가 다른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에 합병 전에 더 우량했던 회사의 채권자는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증가하여 채권 가치가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두 회사가 합병하여 하나의 회사가 될 때 기존 채무는 법률에 따라 합병된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따라서 기존 회사들이 지닌 채무는 새로 합병된 회사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③ 합병 시에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④ 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채권자가 되는 것은 계약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에 의해서이다. ⑤ 보호받는 채권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현재의 채권자 이의 제도는 '보호 필요성이 낮은 채권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11. [출제의도] 지문의 특정 대상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채권자가 있을 경우 합병 과정에서는 합병에 대한 주주 총회 승인이 있은 후에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분할 과정에서는 채권자가 있더라도 반드시 채권자 이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설 회사와 분할 회사가 기존 채무에 대해 개별 책임을 지기로 주주 총회에서 의결할 경우에만 채권자 이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합병의 당사자는 합병에 대한 주주 총회 승인일로부터 2주 내에 합병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음을 공고해야 한다. 이때 이의 제출 기간은 최소 30일이므로 주주 총회 승인 후에 곧바로 공고를 했다면 채권자 이의 절차는 주주 총회 승인일로부터 최소 30일이 소요된다. ③ 합병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합병 무효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합병 무효를 이끌어 내기 위해 채권자가 합병에 대한 이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야 이것이 합병 무효 사유로 인정된다. ④ 회사를 분할할 경우, 각 회사에 위험성이 큰 사업이 얼마나 배정되느냐와 상관없이 배정된 채무에 대해 각 회사가 개별 책임을 지기로 주주 총회에서 의결했을 때에는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⑤ 비자발적 채권자는 피해 시점과 손해 배상 청구 시점이 달라 이의 제출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즉 이의 제출 기간에 이미 피해를 입은 상황이지만 손해 배상 청구 시점이 늦어져 채권자의 자격을 나중에 인정받음으로써 이의 제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12.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빈칸을 적절하게 채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높아지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가치의 하락을 우려할 수 있지만 회사의 주주는 그렇더라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갖기 위해 합병과 분할에 찬성할 수 있다. ㉯ : 분할된 회사들이 채무 변제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면 채권의 가치에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채권자가 분할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연대 책임을 지지 않고 개별 책임을 지기로 의결한다면 위험이 높아지는 회사에 배정된 채권의 채권자는 분할에 반대할 수 있다. ㉰ : 채무 변제에 연대 책임을 지지 않기로 했더라도 분할로 채권 가치가 상승하여 '보호 필요성이 낮은 채권자'는 분할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13.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분할과 합병 과정이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는 사례이다. 분할 시에 개별 책임을 지기로 의결했을 때에는 반드시 채권자 이의 절차를 온전히 밟아야 그 의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갑은 채권자 이의 절차를 온전히 밟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 후에 을과 함께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임을 추론할 수 있다. 반면 몇 년 후에 을이 다른 회사와 합병할 때는 채권자 이의 절차를 온전히 거쳤다.

[정답풀이] 분할된 회사가 배정된 채무에 대해 개별 책임을 지기로 의결했을 경우에는 채권자 이의 절차를 온전히 거쳐야 그 의결의 효력이 발생하여 연대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갑은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최고하지 않아 채권자 이의 절차가 온전히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되고 갑은 을과 함께 A와 B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갑과 을이 연대 책임을 지면 A와 B는 분할되기 전과 다를 바 없는 채권 가치를 갖게 되므로, 분할 후에 B보다 A의 가치 하락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물적 분할 방식을 취하면 신설 회사만 우량하더라도 분할 회사에 대한 채권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A와 B에 대해 갑과 을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되므로 두 채권의 안전성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인적 분할 방식을 취하면 분할 회사의 주주가 신설 회사의 주식을 원래 보유 지분대로 갖게 되므로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주주의 재산상의 변화가 거의 없다. ④ 을이 그보다 더 우량한 회사와 합병함으로써 을에 배정되어 있던 B의 채권 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B의 채권자는 '보호 필요성이 낮은 채권자'라고 할 수 있다. '보호 필요성이 낮은 채권자'가 보호 조치를 받으면 '보호 필요성이 높은 채권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변제 순위가 왜곡될 수 있다. ⑤ 합병 과정에서 이의를 제출하여 담보를 제공받으면 그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은 담보에 의해 보호가 되므로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줄어든다.

[14 ~ 17] 기술

14.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클라트 합성법은 입력된 텍스트를 자음과 모음의 음소 단위로 나누고 각 음소에 대해 포먼트 재현을 하여 이어 붙인다. 즉 음소별로 포먼트 주파수를 측정하니, 단어와 구, 문장에 대해 포먼트 주파수를 측정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음성 스펙트럼에는 상대적으로 진폭이 큰 주파수 성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뾰족한 봉우리 같은 부분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뾰족한 봉우리가 하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럿 관찰된다. 이 봉우리들을 포먼트라 한다. ③ 연결 합성법은 음성 파형들의 접합부에서 거슬리는 소리가 포함되기 쉽다. 이와 달리 디프러닝 음성 합성 모델은 수많은 학습을 거쳐 자연스러운 음성이 만들어지도록 한 것으로, 접합부에서 거슬리는 소리가 포함되는 문제를 극복한 방법이다. ④ 음성 합성은 기계음을 이어 붙이는 것이 아니며, 기계음을 자연스럽게 이어 붙인다고 해도 품질을 올릴 수는 없다. 기계음처럼 들리는 것 자체가 품질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⑤ 디프 러닝 음성 합성 모델에서도 성우가 실제로 녹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텍스트와 그에 대해 성우가 실제 발음한 것의 음성 파형의 쌍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성우가 녹음한 것이 필요한 것이다.

15.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특정 그래프들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클라트 합성법은 음소 단위로 만든 음성 스펙트럼을 이어 붙여 음성 스펙트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포먼트 재현은 음소별 음성 스펙트럼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표로 정리해 둔 것을 참조하여 음성 스펙트럼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음성 파형으로의 변환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음성 파형은 시간 영역의 표현, 음성 스펙트럼은 주파수 영역의 표현이다. 이는 음성을 두 측면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음성 파형과 음성 스펙트럼은 동일한 음성을 달리 표현하는 방식이다. ② 둘 모두 소리의 크기에 해당하는 진폭을 세로축에 둔다. 가로축만 다를 뿐이다. ③ 음성 파형과 음성 스펙트럼은 푸리에 변환이라는 연산을 사용하여 상호 변환될 수 있는 것이다. ④ 음성 스펙트로그램은 수십 밀리초 정도의 짧은 구간마다 만든 음성 스펙트럼을 시간 순으로 이어 붙여 만든다.

16. [출제의도] 지문을 토대로 <보기>의 장치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디프 러닝 음성 합성 모델을 통해 학습을 거친 후 음성 합성 장치를 만드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다. 학습을 위해 구성한 것이나 최종 산물인 음성 합성 장치나 구성 요소들은 동일하다.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장치, 보코더의 네 요소가 그것이다. 각 요소들에는 변숫값들이 존재하는데, 학습을 거치면서 실제의 음성 파형과 비교하며 이 변숫값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학습을 마친 후 음성 합성 장치에 텍스트를 입력하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면 음성이 합성되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미 조정되어 있는 변숫값들이 결과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지들은 이미 학습이 끝난 상태의 음성 합성 장치에 대한 진술들임에 유의해야 한다.

[정답풀이] 보코더는 디코더로부터 음성 스펙트로그램을 입력 받는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음성을 생성하여 출력한다. 그런데 지문에 따르면 음성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음성 파형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음성 스펙트로그램은 음성 스펙트럼을 이어 붙인 것이므로, 각 음성 스펙트럼마다 음성 파형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즉 여러 차례에 걸쳐 푸리에 변환을 반복 사용해야 한다. 이미 특정 성우가 참여한 학습 데이터로 학습이 완료된 장치이므로 성우의 고유한 발음 특징을 지닌 자연스러운 음성이 생성될 것이다.

[오답풀이] ① 인코더는 입력된 텍스트에서 특징 정보를 추출하여 디코더에 입력하는 기능을 한다. ㉮는 학습이 완료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성우가 녹음한 음성 파형을 참고할 필요가 없다. 포먼트를 추출하는 과정도 아니다. ② 디프러닝 음성 합성 모델은 다른 방법과 달리 음성학이나 음운론 등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 아무런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실제 음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지식을 활용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텍스트와 음성 파형 간에 숨겨져 있던 비선형적 관계들이 적용되는 결과를 얻는다. 즉 발음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어텐션 장치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자열과 관련하여 변숫값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들이 학습 과정에서 조정되면서 학습 성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 ③ 디코더는 음성 스펙트로그램을 만든다. 그런데 음성 스펙트로그램은 음성 스펙트럼들을 이어 붙인 것이지, 음성 파형들을 이어 붙인 것이 아니다. ④ 음성 합성 장치는 이미 학습이 완료된 것이므로, 입력된 텍스트에 대해 비선형적 관계들이 잘 반영될 것이다. 다만 디코더까지 거치는 동안 변숫값이 조정되지는 않는다. 변숫값 조정은 학습 과정에서만, 모든 요소들을 다 거쳐 음성 파형을 만든 후 이를 실제 성우의 음성 파형과 비교하면서 이루어진다.

17. [출제의도] 문맥에 맞게 단어를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구현하기'는 '어떤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하다.'라는 뜻이므로 '방법이나 수단을 써서 모르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다.'라는 뜻인 ⑤의 '알아내기'로 바꿔 쓸 수 없다.

[18 ~ 21] 고전소설

➔ **작자 미상, 「권용선전」**

18.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 공주가 오 소저를 제거하려는 모습이 나타난 것은 맞다. 그러나 공주는 황제가 용선에게 내린 처벌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다. '다른 계교가 없어 근심'했다는 것은 석 귀비가 오 소저를 도와줄까 봐 걱정되는 한편, 오 소저와 용선을 갈라놓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는 의미이다.

[오답풀이] ② 상서는 석 귀비가 소저를 '마땅히도와 마침내 위태치 아니'할 것이니 '하늘의 뜻이 순환함을 기다려' 보자고 말하고 있다. 즉 오 소저의 운명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아내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 ⑤ 멀리 제나라 사신으로 보내지게 되어 오 소저와의 관계가 더욱 위태롭게 된 상황에서, 오 소저와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공주가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용선으로서는 공주가 더욱 괘씸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공주를 보고 '통한하'였으나 어머니께 문안하는 자리이므로 불필요한 소란을 벌이지 않고자 '분기를 억제하고' '물러나와 묵묵무언'한 것이다.

19. [출제의도] 특정 사건의 서사적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나라의 소식을 듣고 황제가 누구를 보낼지 고심하자, 주현은 태후에게 '용선을 상서로 봉하여 제나라에 사신으로 보내시고 그사이에 오 소저를 노나라에 보내어 세자의 후궁을 삼'아 '공주에게 미치는 화'도 없애고 '노나라 세자'도 기쁘게 하자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용선이 제나라 사신으로 가게 된 '만 리 원정'은 용선과 오 소저를 갈라놓고자 계획된 일이다.

[오답풀이] ③ 주현은 태후와 공주가 있는 자리에서 태후에게 용선을 사신으로 보내라고 제안하였다. ④ '만 리 원정'은 주현의 계교에 의해 용선이 제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된 일이다. 용선과 오 소저 두 사람을 노나라로 추방하기로 한 일이 아니다.

20.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공주는 제나라에 사신으로 떠나게 된 용선에게 '오녀가 궁중에 있어'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나니 '심회 좋지 않'겠다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이에 용선은 [B]에서 공주가 그간 벌인 행동('간사하고 음흉한 말로 남을 헐뜯고 ~ 이렇듯 나의 분을 돋우니')을 열거하며 '진실로 사람의 염치로 할 일이 아니라'고 비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A]에서 공주가 겉으로나마 '반드시 슬픈 심회 중하실 터'라고 용선의 처지를 염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B]에서 용선이 공주의 진의를 오해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주의 진의를 꿰뚫어 보고 공주를 비난한 것이다. ③ [A]에서 공주가 용선의 술수를 조롱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B]에서 용선이 '이후로는 유치한 세도 부리기를 마음에도 먹지 말'라고 한 말은 행실을 고치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A]에서 공주가 겉으로나마 '심회 좋지 않으시리이다'라고 하며 용선의 착잡한 심정을 헤아렸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근심을 해소할 방안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 또한 [B]에서는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⑤ [B]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B]에서 용선은 공주에게 오 소저가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강조하며 오 소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궁녀들이 '이는 실로 인간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한 것은 공주에게 괴롭힘을 당하고도 오 소저가 '낯빛이 변함없고 아무런 답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칭찬하여 한 말이지 공주를 원망한 말이 아니다. (이러한 궁녀들의 말에서 늑혼을 강요하는 권력에 대한 우회적 반발심을 읽어낼 여지는 있다.)

[오답풀이] ② 용선과 오 소저의 혼례를 도운 권시랑이 '관작', 즉 벼슬과 작위를 잃었다는 것에서, 용선의 혼인을 둘러싼 갈등이 개인의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조정의 관직이라는 공적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④ 황명을 받고 용선이 무척 분노하였으나 집안사람들과 소저를 염려하여 마음을 다스린 것은, 황제의 권력이 절대적이기에 섣불리 저항하며 분노를 표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22 ~ 27] 현대시 – 수필 통합

➔ **연계 지문 : 김춘수, 「강우」(수능완성 214쪽)**

➔ **작가 연계 : 정지용, 「삽사리」(수능특강 31쪽, 수능완성 143쪽) | 이태준, 「일분어」(수능특강 158쪽)**

22. [출제의도] 두 작품의 공통점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환히 새'운 '촛불(시각)', '죄죄대던 개울물 소리(청각)', '둥긋이 넘쳐 오던 이윽달(시각)' 등에서, (나)는 '맵싸한 냄새(후각)', '메아리(청각)', '어둠(시각)' 등에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오답풀이] ⑤ (가)는 시간적 배경이 '그날 밤'인 과거의 어느 날로 고정되어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라는 시구에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부분적으로나마 나타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후 밤에 내리는 비를 통해 화자의 짙어지는 슬픔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시상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화자는 ㉥('개울물 소리')이 '기어들세라(기어들까 두려워)' '삽사리'가 '이저리 서대던'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고 있다. 즉 '삽사리'는 ㉥조차 허용하지 않을 듯 충직하게 '그대'를 지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 '그대'의 집에 들어서는 것이 허용된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짙은 울 가시 사립')은 짙은 울타리와 가시나무로 된 사립문을 뜻하는데, ㉠이 '굳이 닫히었'다고 함으로써 '그대'의 집이 외부인이 범접하기 힘든 곳임을 나타내고 있다. ② ㉡('덧문')은 '문짝 바깥쪽에 덧다는 문.'으로 이것을 지나 ㉢('미닫이')을 열고 들어가야 '그대'의 방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과 ㉢은 모두 '그대'가 머무는 곳으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⑤ ㉤('이윽달')은 '큰 봉을 돌아 둥그레 둥긋이 넘쳐' 와서 '그대'의 집에 '선뜻 나려'설 것같이 묘사되어 '그대'의 집이 자리한 공간의 정경을 떠올리게 해 준다.

2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라는 표현은, 아내가 혹시 집밖에 있을까 하는 마음에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상황과 더불어 부재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심리를 환기하고 있다. 아내의 부재를 잠시나마 잊어 보고자 하는 심리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① '코를 맵싸하게' 한다는 표현은, 밥상이 차려져 있는 상황을 후각적으로 환기하면서 동시에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어리는 화자의 상황도 환기함으로써, 아내의 부재로 인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한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고 있다. 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라는 표현은, 폭우가 내리는 시적 상황을 환기하는 동시에 '비'가 '퍼붓'는 것처럼 격한 슬픔에 휩싸인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25.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내 목소리'는 아내를 부르는 화자의 목소리이다. 그런데 아내의 대답 대신 자신의 목소리만 귀에 들린다고 했으므로, 이는 아내의 대답이 들려오지 않음을 뜻한다. ⓑ는 자신이 매번 열심히 설명해 보아도 제대로 된 대답이 아님을 느낀다는 진술이다. 이는 자신이 상대의 물음에 만족스럽게 답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오답풀이] ② ⓑ는 표현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상대의 부족한 식견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는 아내의 부재라는 문제 상황을 다시금 확인하는 모습이다. 그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모습과는 무관하다. ⓑ는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부족함을 극복하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눈이 치로 쌓인 고샅길 인기척도 아니 하였거니'라는 시구에서, 화자는 '그대'를 부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자는 '그대' 집 근처에 가서도 차마 '그대'를 부르거나 하지 못하고 '삽사리'가 짖어 대는 모습만 바라보았을 뿐이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그대의 밤을 지키던 삽사리 괴임 직도 하'다고 한 것은, 임을 충직하게 지킨 '삽사리'가 (화자 혹은 임에게) 사랑받을 만도 하다는 말이다. 이는 삽사리의 모습을 목격한 것을 전제로 한 진술이므로, 이를 통해 '그날 밤' 화자가 임의 집을 찾아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가)에서 '내가 그댈새레 그대 것엔들 닿을 법도 하리.'는 문맥상 '내가 그대는 커녕 그대의 것엔들 닿을 방법이 있으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진술을 통해 화자가 '그대'에게 다가가기 힘든 처지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과 달리 '삽사리'는 '그대 벗으신 고운 신'에 '이마'를 대고 잔다고 한 것에서, '삽사리'처럼 임에게 닿고 싶은 화자의 애틋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27. [출제의도] 작품에서 언급된 인물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노목수'가 '제 환공'이 읽는 책을 '옛날 어른들의 찌꺼기'라고 말하자, '제 환공'은 '노목수'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를 추궁한다. '노목수'는 '치목하는 예를 들어' 자신의 체득한 바를 말로 남에게 온전히 전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옛적 어른들'도 '정말 전해 주고 싶은 것'은 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 말한다. 즉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일반화하여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논리를 펼쳐 자신이 앞서 책을 '옛사람의 찌꺼기'라고 한 말의 근거를 밝힌 것이다.

[오답풀이] ① '노목수'는 먼저 윗사람인 '제 환공'에게 말을 걸어 '책'이 '옛날 어른들의 찌꺼기'라는 도발적인 발언을 한 후 태연히 그 이유에 대해 대답하고 있다. 즉, 그는 자신이 생각한 바를 그대로 말한 것일 뿐 위기 상황에서 임기응변을 발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늙은 목수 자약하여 아래와 같이 아뢰었다'는 진술로 볼 때, '노목수'는 화를 내는 상대의 반응에도 태연자약한 태도를 보이며 '제 환공'의 추궁에 응수한 것이다. ③ '노목수'는 '치목하는 예' 하나만을 근거로 자신의 논리를 펼쳤으며, 상대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지도 않다. ⑤ 상대가 자신에게 취한 언행에 불쾌감을 느끼며 그 이유를 물은 사람은 '노목수'가 아닌 '제 환공'이다. (한편 환공의 경우, '공인의 말투로 너무 무엄하여 환공이 노기를 띠'었다는 진술에 신분 차이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그보다는, 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기술자가 분수에 넘치는 말을 한다고 화를 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28 ~ 30] 고전시가

➔ **연계 지문 : 김정희, 「배소만처상」 (수능완성 199쪽)**
➔ **조위, 「만분가」**

28.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는 죽어서 '구름'이 되어 '옥황 향안 전'에 나아가 가슴에 '쌓인 말씀'을 '사뢰'고 싶다는 화자의 심정이, (나)에는 '월하노인을 통하여 저승에 하소연해' 죽은 아내에게 자신의 슬픔을 알게 하고 싶다는 화자의 심정이 나타나 있다. 즉, [A]는 '옥황'과, (나)는 '월하노인'이라는 초월적 존재와 결부된 상상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A]에는 청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② (나)는 '내세'에 아내와 서로 바꾸어 태어나는 상황을 가정하여 아내에게 자신이 느끼는 슬픔을 알게 하고 싶다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즉, 상황에 대한 가정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슬픔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인식 전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A]에는 '늦은 봄'과 같이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고,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상황 또한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는 '천 리 밖'이라는 시어에 화자가 느끼는 공간적 거리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탈속성(속세를 벗어난다는 뜻 혹은 부나 명예와 같은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과는 무관하다.

2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 5의 말을 참고하면, ㉤은 큰 환란으로 인해 선인과 악인이 구별 없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지는 맥락에서 '난이 반이나 시들었'다고 탄식하는 화자의 태도를 고려할 때, ㉤은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말이라기보다는 선인과 악인의 구분 없이 모두가 화를 입게 되는 '모진 불'에 죄 없는 사람들(또는 죄 없는 자기 자신)이 휩쓸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답풀이] ② 학생 2의 말을 참고하여 ㉡의 '금화성'과 '백옥당'을 조위가 과거에 거친 관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금화성 백옥당의 꿈'조차 '향기롭다'고 하는 것은 관직에 있던 과거 시절의 기억을 아름다운 것으로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의 '일모 수죽에 취수도 냉박'하다는 것은 해 저물녘 긴 대나무에 기대어 있으니 푸른 옷소매가 차갑게 느껴진다는 의미인데, 학생 4의 말에 따르면 이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푸른 옷소매의 여인을 그린 두보의 시 구절을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작가가 자신을 버림받은 여인에 빗대어 슬픔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학생 4의 말을 참고하면 ㉣의 '한단', '진'과 '월'은 모두 아무 상관이 없는 일에 휘말리는 경우를 나타내는 고사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비슷한 의미의 고사를 중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한 억울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작품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면,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일이란 곧 유배를 오게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은 자신이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유배를 오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가 '옥황'에게 실컷 '사뢰'고 싶다는 '쌓인 말씀'은 갑작스러운 유배로 인한 슬픔에서 비롯된 말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천문 구만리'를 통해 '옥황'과의 거리를 부각하는 것은 유배로 인한 슬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천 리 밖'은 화자가 '그대', 즉 죽은 아내에 대해서 느끼는 거리감을 부각하는 표현이지 화자와 '월하노인'과의 거리를 부각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② (가)의 화자는 '옥황'이 있는 곳은 '꿈이라도 갈동 말동'하다는 생각에, '차라리 스어지어' '저문 하늘 구름 되'어서 옥황 앞에 나아가 '흉중에 쌓인 말씀'을 실컷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나)의 화자는 '내세'에는 아내와 서로 바꾸어 태어나서 자신이 느끼는 슬픔을 아내에게 알게 하고 싶다고 한다. (가)와 (나) 모두 자신이 느끼는 심정을 상대에게 알리기 위해, 죽어서 다른 것이 되거나 상대방과 바뀌어 태어나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실에서는 자신의 심정을 전할 길이 없다는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선생님의 안내를 참고할 때 (가)에서 '벼슬길'에 일어난 '뜻밖의 회오리바람'은 사화를, 화자가 빠지게 된 '억만 길 못'은 유배의 상황을, '하늘과 땅을 모르'게 되었다는 것은 그로 인한 막막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1 ~ 34] 현대소설

➔ **연계 지문 : 박태순, 「무너진 극장」 (수능특강 39쪽)**

31.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은 서술자인 '나'가 시위대에 가담하여 시위대와 함께 극장으로 가서 그곳을 파괴하는 행위에 동참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술하고 있다. 또한 시위대를 진압하는 총소리에 대해 '총소리는 절대적인 정적, 그것과 마찬가지로 계속이 되어서, 그 소리가 없으면 도리어 이상해질 것 같은 모호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 흐느적거리는 즙액처럼 그 총소리 속에 용해되어 버릴 것 같았다.'라고 서술하거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나, 극장 내부를 파괴하는 소리에 대해 '그것은 이 세상이 파괴되는 음향이었다.~깨뜨려질 까닭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서술한 부분 등에서 서술자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주관적인 상념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서술자가 시위대에 가담하여 그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경험한 바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32. [출제의도] 중심 소재의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극장'은 시위대가 무너뜨리고자 하는 독재 체제를 상징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인 임화수의 소유로, 혁명 이전 '사람들의 집회 장소'였으며, '레코드판처럼 똑같이 반복되었던 찬양의 소리, 속삭임 소리'가 들리던 곳이다. 이는 '극장'이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공연이나 영화 등의 매체를 선보이며, 체제 친화적인 이념을 대중에게 반복적으로 주입시키던 곳이었음을 의미한다. 혁명이 일어나고 시위대가 '극장'을 파괴하게 된 것도, 혁명 이전의 '극장'이 독재 체제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위대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극장'은 혁명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독재 체제를 연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극장' 안을 증오심이 만연한 공간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극장'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그들이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는 대상은 폭력 자체('붕괴되고 있는 저 굉음')이며, 그들은 공포를 느낄수록 폭력에 더욱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3. [출제의도] 특정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임화수는 나오라, 임화수는 나오라')는 극장 앞에서 시위대가 외친 소리이다. 어휘 풀이를 통해 임화수가 4.19 혁명 이전 자유당 정권과 결탁하여 부당한 일을 저지른 인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은 독재 정권과 결탁한 자를 소환하는 군중의 목소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위대에 대한 총격은 시위대가 ㉢을 외친 후 극장을 향해 달려가던 때에 발생했으므로, 군중이 임화수에게 시위대에 폭력을 가한 책임을 물으려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3.15 선거는 불법이다, 부정이다,')은 혁명에 참여한 시위 군중들이 외치는 구호로서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선거의 불법성을 규탄하는 소리이므로, 정치 상황에 대한 군중의 불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④ ㉣('타캉')은 극장 안에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한 것으로 짐작되는 총성이다. 총소리가 연속적으로 울리면서 총에 맞아 다친 사람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고' '돌멩이들이 앞으로 뻗쳐 나갔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총성으로 인해 시위가 격화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파괴에서 묘한 쾌감조차 느끼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붕괴되고 있는 저 굉음에 대하여서는 어떤 본능적인 공포를 자극받'고 있는 주체는 '사람들'이다. 또한 사람들은 '공포를 느낄수록' 폭력에 '더욱 집착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지문의 맥락에서 살펴볼 때 '나'의 심리도 '사람들'의 심리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추론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폭력에 '집착하고 있'다는 서술 이후에 '나' 역시 극장 바닥을 부수기 시작하는 장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서술자는 극장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질서 행위가 극장의 '질서의 음향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라고 하며, 이 '음향은 파괴될 필요가 있었는지도 모른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극장의 '질서'란 사람들을 독재 체제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보기>를 참고하면 그 질서를 깨뜨리는 무질서는 '기존의 타락한 질서를 무너뜨려 변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술자는 타락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힘으로서 폭력을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지문을 보면 시위 군중들은 극장 내부에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어떤 절망 같은 것, 이 세계가 이것으로 끝나 버릴지도 모른다는 아득한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보기>를 참고할 때 이는 무질서가 무질서 자체로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과 결부되며, 군중이 폭력 행위를 중단하지 못하고 그에 더욱 '집착하'게 되는 심리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35 ~ 37] 화법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209쪽

35. [출제의도] 발표에 관한 설명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발표자는 '책거리 속의 책이 아닌 물건들의 의미를 궁금해하'는 청중의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발표에 반영된 발표 계획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발표에서 책거리에 그려진 책들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조선 후기 사람들의 염원을 설명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초창기 책거리에는~책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라고 다보각경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들어 책거리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② '정조가 이러한 책거리를 구상한 이유는~그려 놓게 했다고 합니다.'라고 정조가 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책거리를 구상해 병풍으로 사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③ 궁중, 사대부가, 민가의 책거리 각각을 보여 주는 사진 세 장을 제시하고 있다. ⑤ '마침 우리 시의 미술관에서~좋겠습니다.'라고 우리 시 미술관에 방문하여 책거리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관람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발표를 들은 청중의 반응을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 1'은 '조선 시대에 책거리 이외에도 전 계층에서 유행했던 그림 유형이 또 있을까?'라고, '학생 3'은 '크기가 큰 민화인 책거리가 있다면 거기에도 책가가 없을지 궁금하네.'라고 추가적인 궁금증을 떠올리고 있다.

[38 ~ 42] 화법 - 작문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07쪽

38. [출제의도] 토론 논제의 성격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논제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고 밝히는 정책 논제이다.

39. [출제의도] 토론의 입론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반대 1'이 입론에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해외의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찬성 1'은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응답자의 88%가 동의했'다고 구체적 수치를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② '찬성 1'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면 '우리 사회의 차별이 점차 사라져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논제와 관련된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③ '찬성 1'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벌어지는 모든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라고 핵심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며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⑤ '반대 1'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 금지되거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상대측의 주장이 실현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토론의 반대 신문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B]에서 '찬성 1'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이 최근 철회되었다는 점을 제시하여 상대측이 발언한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반대 2'는 상대측이 언급한 설문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의 편파성을 지적한 것이 아니다.

41. [출제의도] 글에 반영된 글쓰기 전략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했다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②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개별적 차별 금지법과 달리,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한 사유로 벌어지는 각종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다.'라고 개별적 차별 금지법과의 비교를 통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제정은~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라고 국제 인권 협약 가입국으로서 유엔 사회권위원회로부터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입법을 권고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④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불가피한 차별 대우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기업 경영상 불가피한 차별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어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⑤ '그런데 표현의 자유는~제한받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선을 제시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글의 끝부분을 적절하게 이어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첫째 문장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 유일한 방패이다.'라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성격을 비유법을 사용하여 제시하고 둘째 문장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한 ①이 가장 적절하다.

[43 ~ 45] 작문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40쪽

43. [출제의도] 글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의 글'에서 연령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수면 관성의 양상을 언급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44. [출제의도] 마지막 문단의 수정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 제시된 마지막 문단의 초고는 글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후 기상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수정한 [A]는 글에서 언급한 '알람 설정을 바꾸'는 방법을 실천해 볼 것을 예상 독자인 학생들에게 권하고, 그 기대 효과를 제시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성찰하는 글에서 정보를 활용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은 자신이 지닌 기상 습관((나)에서 언급한 수면 관성을 악화시키는 습관)이 아침에 덜 졸리게 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교지의 글을 읽고 자신의 기상 습관을 돌아본 후, 이 습관이 오히려 자신이 겪는 문제 상황의 원인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오답풀이] ③ 수면 관성으로 인한 증상으로 '아침마다 겪고 있는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언급하였으나, 하루 일과에 지장을 받았던 실제 경험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 경험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상 습관을 돌아보게 된 계기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④ (나)에 언급된 연구의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한 정보는 기상 습관을 돌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천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⑤ (나)에 언급된 수면 관성을 완화하는 방법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적용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나)에서 언급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야겠다는 다짐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35 ~ 39] 언어

35. [출제의도]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54쪽

표제어 '눈[1]'의 경우, '물체의 존재나 형상을 인식하는 눈의 능력.(=시력)'이 ②로,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안목)'이 ③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의어는 중심 의미에 가까운 순으로 주변 의미가 기술되므로, '안목'이라는 의미가 '시력'이라는 의미보다 중심 의미에 가깝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다의어는 중심 의미가 1번 뜻으로 기술된다. ③ 표제어 '눈[4]'와 '눈[5]'는 별개의 표제어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동음이의어이다. ④ '타인의 눈을 의식하다.'의 '눈'은 '눈[1]'과 의미상 연관성이 있으므로, '눈[1]'의 주변 의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36. [출제의도] 제시된 단어의 유의어와 반의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81쪽

ⓒ의 '받다'는 '선생님이 가르침을 주다'에서 알 수 있듯이 반의어로 '주다'를 제시할 수 있다. ⓔ의 '받다'도 '박사 학위를 주다'에서 알 수 있듯이 반의어로 '주다'를 제시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의 유의어로 '어울리다'는 맞지 않다. ② ⓐ와 ⓓ의 반의어로 '내리다'는 맞지 않다. ③ ⓔ의 유의어로 '맞다'는 맞지 않다. ④ ⓒ의 유의어로 '거두다'는 맞지 않다.

37. [출제의도] 최소 대립쌍을 찾고 그로부터 추출된 음운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90쪽

'본진'과 '본인'은 최소 대립쌍이 될 수 없다. 초성의 'ㅇ'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조건은 같고 오직 하나의 소리로 인해 의미가 구별된다는 최소 대립쌍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딴전'과 '반전'은 다른 조건은 모두 같고 하나의 음운인 'ㄸ'과 'ㅂ'의 차이로 그 의미가 변별되므로 최소 대립쌍이 맞는다. ⑤ 종성의 'ㅇ'은 음가가 있기 때문에, '본인'과 '봉인'은 최소 대립쌍으로 볼 수 있다.

38. [출제의도] 명사절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74쪽

명사절 '누가 보기'는 명사 '전'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명사절이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② 명사절이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③ 명사절이 보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④ 명사절이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39. [출제의도] 하나의 형태가 자동사와 타동사로 통용되는 경우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85쪽

'나랏 일훔 ᄀᆞᄅᆞ시니(나라의 이름 바꾸시니)'에서 'ᄀᆞᆯ다(바꾸다)'는 '나라의 이름'을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로 쓰였다. '時節이 ᄀᆞᆯ어든(시절이 바뀌면)'에서 'ᄀᆞᆯ다(바꾸다)'는 '시절이'를 주어로 취하는 자동사로 쓰였다.

[오답풀이] ① 위 문장과 아래 문장 모두에서 타동사로 쓰였다. ② 위 문장과 아래 문장 모두에서 자동사로 쓰였다. ③ 위 문장과 아래 문장 모두에서 타동사로 쓰였다. ⑤ 위 문장과 아래 문장 모두에서 자동사로 쓰였다.

[40 ~ 43] 매체 - 언어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82쪽

40. [출제의도] 텔레비전 방송 뉴스의 정보 전달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방송 뉴스에서 전달되는 내용을 취재한 기자는 현장에서 뉴스를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튜디오에 나와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이 내용을 취재한 박○○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라는 진행자의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 [출제의도] 텔레비전 방송 뉴스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는 접속 표현 '그런데'를 활용하여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상반된 내용으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42. [출제의도] 텔레비전 방송 뉴스를 시청한 시청자의 수용 태도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시청자 1은 유기 동물의 발생 수와 관련하여 뉴스에서 제공한 정보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시청자 5도 유기 동물 입양률과 관련하여 뉴스에서 제공한 정보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한 내용과 다름을 지적하며 어느 정보가 맞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따라서 시청자 1과 시청자 5는 뉴스에서 언급된 유기 동물과 관련한 통계 수치들이 정확한 것인지를 점검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시청자 2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시청자 4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④ 시청자 3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⑤ 시청자 3과 시청자 5 모두 입양 절차에 관해 뉴스에서 제시된 정보가 사실인지 점검하고 있지 않다.

43. [출제의도] 휴대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유기 동물 입양 앱의 '입양 후기' 메뉴(ⓒ)를 누르면 유기 동물 입양자들의 후기를 읽을 수 있고, 자신의 입양 후기를 쓸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입양자들의 후기를 읽는 매체 자료의 수용자가 때로는 직접 입양 후기를 작성하는 생산자도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4 ~ 45] 매체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235쪽

44. [출제의도] 블로그 매체에 나타난 표현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축산육 생산 과정에서 ~ 위의 동영상을 봐 주세요.'라고 언급한 부분과 함께 삽입된 '축산육 생산 과정에서는 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할까?'라는 자막이 달려 있는 동영상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④ (가)에는 식물성 대체육의 원재료가 되는 식품의 종류, 즉 '콩, 버섯, 해조류'의 사진이 아니라 '식물성 대체육 제품'의 사진이 제시되어 있다. ⑤ 식물성 대체육의 건강상 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라디오 인터뷰'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활용하여 안내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스토리보드 생산에 반영된 학생의 제작 계획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화면 #2는 내레이션과 효과음을 모두 포함하면서 '양팔저울'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가)에 제시된 소고기와 감자를 생산할 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해당 정보를 비교하기 위해 화면을 분할하고 있지는 않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